



지난 2021년, 국내에서 34년 만에 태어나
대한민국을 행복으로 물들였던 다섯쌍둥이
수현·재민·이현·서현·소현(왼쪽부터)

2024.05 MAY

시민의 정원 '인천꽃들'에서 김진수 대위(서혜정 소령 부부



높이 20m, 둘레 3.2m의 600년 된 보문사 향나무.
1995년 인천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됐다.

인천은 [뿌리 깊은 나무]다



글·사진 오인영 사진작가

관세음보살의 온화한 미소를 닮은 5월, 강화 석모도 보문사 산비탈을 오른다. 보문사에는 유독 오래된 나무가 많다. 300년 넘도록 나란히 선 두 그루의 느티나무, 절집 마당에는 600년 묵은 은행나무도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석실과 범종 사이 뿌리내린 600년 된 향나무다. 승천하는 용의 형세를 닮아 영감한 기운이 감돈다. 역시나 범상치 않은 사연을 지녔다. 나무는 6·25 전쟁을 겪으며 생을 다한 듯했다. 하지만 3년 뒤, 긴 잠에서 깨어나 새 생명의 가치를 뻗었다. 그렇게, 다시 우뚝 서 보문사를 지키며 역겹의 세월을 향하고 있다. 나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땅속 깊이 박힌 뿌리 때문은 아니었을까. 제아무리 모진 시련 닥쳐도 굳건한 뿌리가 있다면 새 희망의 잎사귀를 싹틔울 수 있듯이 말이다. 인천의 지난했던 역사도 뿌리 깊은 나무를 닮았다. 미추홀의 탄생부터, 세 번의 개항을 거쳐 세계 10대 도시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하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이겨내며 더 큰 세상으로 힘차게 가지를 뻗었다. 이제는 세계 속에 뿌리내린 글로벌 인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APRIL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5



굿모닝인천 웹진 오디오북 듣기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4년 5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강성욱(대변인)
편집주간 한영진(홍보기획관)
편집장 임성훈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임학현·최준근·유승현·박재현
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04	인천 미소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미래 외	38	아름다운 동행 친환경 기업
05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고마워요, <굿모닝인천>	40	문화 캘린더 공연·전시 안내
06	커버스토리 ① ※ 다국어 서비스 금쪽같은 오동이	42	시민의 시선 가정의 달
10	커버스토리 ② 글로벌 가족	44	이미지 뉴스 소상공인 정책
14	굿인이 만난 사람 인천 사람, 배우 신현준	46	시정 뉴스 세계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외
16	인천에서 인천으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50	의정 뉴스 지역 간 균형 있는 상생 발전을 위해 외
20	IncheON 오월의 빛과 색, 24시	52	컬러링 인천 부평 캠프마켓
24	시민 행복 인천 시민이 행복한 교통 혁명	54	인포 박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28	요즘, 인천 F1 그랑프리 유치	57	땅 이름 이야기 부평·부평구
32	내가 사랑하는 인천 김중미 작가	58	시민 행복 메시지 다섯쌍둥이와 노부부
36	인포그래픽 APEC 유치	59	인천사진관 인천爰들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032-440-8302, 8304~6



가정의 달, 가족 사랑을 확인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굿모닝인천> 5월호에는 많은 가족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4년 만에 탄생한 다섯쌍둥이 가족, 그리고 다섯쌍둥이 가족과 함께 우리 시 홍보대사로 이름을 올린 배우 신현준 씨와 삼 남매, 이국땅에서 가정의 달을 맞는 외국인 가족이 소개됩니다. 다섯쌍둥이 가족이 처음으로 떠난 가족 캠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는 갓 창단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현장을 찾아 봄 햇살 같은 하모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철도 르네상스’, ‘인천 아이패스’ 등 서막이 오른 우리 시의 교통 혁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교통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우리 시의 ‘F1 그랑프리’ 유치 움직임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울러 ‘갱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 사업’을 앞두고 소설 <갱이부리말 아이들>의 저자 김중미 작가는 인천의 옛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정의 달, <굿모닝인천>과 함께 가족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미래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 고향이 하늘, 땅, 바다를 모두 품은 도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굿모닝인천> 4월호를 보고 내가 사는 인천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장과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인천 시민이라서 행복합니다.

김예찬 계양구 봉오대로

항로표지관리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등대지기’란 노래가 익숙해서 그분들의 이름이 ‘항로표지관리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변화무쌍한 바닷길을 밝히기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광파·전파·음파를 쏜다는 것도 <굿모닝인천> 기사를 통해 새롭게 알았습니다. 바다의 도시, 인천에는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항로표지관리원이 근무하고 있겠지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혜진 연수구 원인재로

한 장 한 장 추억이 방울방울

일찍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막둥이까지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가끔의 여유를 즐길 때 <굿모닝인천>은 늘 친구가 되어줍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게는 한 장 한 장이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그중, 송림동 달동네 이야기로 풀어낸 그림 전시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난다면 꼭 예전 살던 송림동 동네에 한 번 가보려 합니다.

최은혜 서구 가정로

사람 냄새 나는 <굿모닝인천>

머나먼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를 지키는 사람, 훌쩍 바다로 떠난 젊은이... <굿모닝인천>에서는 늘 사람 냄새가 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천을 무대로 활기찬 노후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도 소개됐으면 합니다.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며 힘차게 삶을 가꾸어가는 실버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습니다.

오범세 남동구 서창남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굿모닝인천>

글 이선희(부평구 열우물로)

부평으로 이사 온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때론 혼자인 게 쓸쓸하게 느껴져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궁리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봄바람 불고 햇살 좋은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인천의 좋은 곳이 어디인지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비치된 책자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있는 시원한 하늘과 상공을 가르는 비행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어 들고 날개를 펴는 순간, 푸르른 인천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굿모닝인천> 4월호였습니다. 책자를 집에 가지고 와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인천에 얽힌 추억 여행이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종도 바닷가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회를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에 실린 백령도 기사도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지인의 초대로 들렀던 콩돌해안과 남동생과의 진솔한 대화, 두무진에서의 바다낚시 등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났습니다. 순간, <굿모닝인천>에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멋진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굿모닝인천> 마니아를 기다립니다!

매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코너에 소개될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추억, 고마움 등 어떠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Please Scan the QR code
- 请扫描二维码。
- QRコードをスキャンしてください。
- Пожалуйста, от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 QUÉT MÃ QR BẰNG CAMERA ĐTDĐ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축복,

금쪽같은 오둥이



청라해변공원캠핑장 놀이터에서, 오둥이가 있기에 특별한 5월



‘가정의 달’ 특집

6,500만분의 1. 다섯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0만분의 1로 알려진다. 로또 1등보다 값진 행운은 동갑내기 부부 육군 서혜정(33) 소령과 김진수(33) 대위에게 찾아왔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숫자, 5.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부부는 한꺼번에 찾아온 오둥이를 축복이라 여겼고, 용기를 다졌다. ‘기적과도 같은 출산’ 끝에 ‘기적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다섯쌍둥이 가족을 만났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오색찬란한 행복

간절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귀하디귀한 생명, 그런데 다섯이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숫자, 5. 산모도 태아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작지만 강한 심장 소리를 들은 엄마는 ‘선택적 유산’ 대신 ‘아이들 전부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28주 차, 산처럼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2021년 11월 18일,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 하던 밤.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엄마는 한 가지 기도만 끝없이 되뇌었다.

석 달 먼저 세상에 나온 아기들은 한없이 여리고 작았다. “막내는 850g밖에 안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의 소망은 한결같다. “작게 태어났지만 크게 키우고 싶어요. 건강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요.” 기적과도 같은 출산을 해낸 서혜정 소령의 곁에서 포동포동 살이 오른 오둥이들(딸 소현·수현·서현, 아들 재민)이 천진난만한 웃음을 흘린다.



3



- 1 — 다섯쌍둥이들의 생애 첫 캠핑
- 2 — 아빠 품에서 든든한 미소천사 수현이
- 3 — 가만히 민들레 홀씨를 건네는 소현이

오늘 생애 첫 가족 캠핑을 나온 오둥이네, 아이들은 신이 났다. 마음껏 뛰고 달리다, 모래놀이터에 첩퍼덕 앉아 양증맞은 손으로 모래를 야무지게 파낸다. 덩달아 신이 난 엄마, 아빠와 함께 미끄럼틀에도 올라가 본다. 호기심 많은 소현이는 풀밭에 등을 돌리고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다. “소현이 뭐해?” 아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소현이가 동그란 민들레 홀씨를 아빠 손에 쥐어준다. 후우~, 팔랑 팔랑 홀씨가 사방으로 날아오른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밀도의 공기가 오둥이들 곁에 머무는 것 같다.

기적처럼 찾아와 대한민국을 행복으로 물들였던 감동의 다섯쌍둥이. 오둥이네 집에는 오늘도 오색찬란한 행복이 가득하다.

기적처럼 찾아온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오둥이네 가족



상상 그 이상의 육아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대한민국에서 다섯쌍둥이는 경사 그 자체다. 어딜 가나 등장과 함께 ‘시민들의 시선 집중’. “저희 가족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진수 대위는 ‘애국자’라며 응원해 주는 말이 힘이 된 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이 쑥쑥 자랄수록 상상 이상의 육아를 경험하는 가족들은 오늘도 뛰고 달리고 먹이는, 전투 육아 상태다. 아들, 며느리의 고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다섯쌍둥이의 친할머니가 올라와 인천에 있는 다둥이네서 함께 살게 됐다. 평일에는 어린이집 하원 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돌봄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봐준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총출동해 ‘군사작전’과도 같은 육아를 한다. 걷고 뛰기 시작한 오둥이들과 ‘주말에 뭘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는 서 소령은 “박물관이나 놀이공원에라도 가려면 36개월 이후부터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 돈”이라며 “입장료 등 다자녀 할인을 꼭꼭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곧 학교에 들어가면 매달 들어갈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터. 서 소령은 “학원은 아예 못 보낼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다태아는 단궤태아에 비해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다섯쌍둥이는 민간보험에 들지도 못했다. 0.85~1.05kg의 극소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발달 검사도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1인당 15만 원 정도다.

‘기적’과도 같은 출산 끝에 육아라는 ‘현실’을 마주한 두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오둥이를 위해 오늘도 힘을 낸다.

오둥이네, 인천시 홍보대사 되던 날

오둥이네 가족이 등장하면 항상 작은 소동이 벌어진다. 아이 다섯에 어른 셋이 산더미 같은 짐을 주렁주렁 달고 이동한다. 사방으로 질주하는 오둥이들은 몰려드는 관중들이 함께 봐준다.

지난 4월 5일, 우리 시는 오둥이네 가족을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제 막 걷고 뛰기 시작한 오둥이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시청으로 들어와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다. 유정복 시장도 오둥이들 목에 ‘인천시 홍보대사 목걸이’를 걸어주고,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아이가 우리의 미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며 두 부부를 응원했다.

부부는 다섯쌍둥이 출산에 대해 “백 번 천 번 잘한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대위는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소령은 “새로운 행복은 낳아봐야 아는 것”이라며 “다섯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지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덧붙여 “다섯쌍둥이가 ‘5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됐다”며 “인천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된 후부터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는 적도, 제대로 앉아 밥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후회 한 점 없는 시간이었다. 눈물보다 많았던 웃음으로, 고생보다 넘쳤던 보람으로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왔다. 기적처럼 찾아온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오둥이네 가족에게는 매일매일이 행복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오둥이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i dream

지난해 말 맘카페를 비롯한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 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1억+i dream 정책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천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받는다.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존 지원액 7,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인천아이꿈수당, 임신부 교통비 등을 추가로 든든하게 지원한다. 인천형 출생정책의 첫 시행 사업으로 임신부 교통비 지급이 현실화됐다. 천사지원금은 6월께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천 속 글로벌 가족 이야기



국적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나 된 이들이 있다. 그들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대한민국 인천에 터를 잡고, 스스로를 ‘인천 사람’이라 소개한다. 인천이 좋아 인천을 찾았고, 그 누구보다 인천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인천 사람들. ‘글로벌 인천’을 닮은 ‘글로벌 가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가정의 달’ 특집



인천살이의 가장 큰 힘, 부부의 믿음과 사랑이다.

family
**Lynnette
Grace
Leonard**

유튜브에서 본
인천을
삶의 터전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을 좋아하는
에다와 멜다 자매



송도국제도시 서쪽에 자리한 송도글로벌파크, 네 명의 외국인이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다. 미국에서 불가리아를 거쳐 인천에 새 둥지를 튼 르넷 Lynnette Grace Leonard 가족이다. 남편 존 John Mark Leonard과 아내 르넷은 미국 국적을 가졌다. 둘은 고향을 떠나 불가리아에서 교수로 일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두 딸 에다 Eda Rose Leonard와 멜다 Melda Grace Leonard를 얻었다.

인천과의 인연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됐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가족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던 중 인천을 알게 됐다. 유튜브에 소개된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을 본 것.

“우리 가족은 도시의 실루엣에 흠뻑 반했어요. 곧장 송도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가족 프로젝트였죠.” 해답은 직장이었다. 마침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고 있었다. 르넷에게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그렇게 가족은 지난해부터 인천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르넷 가족은 인천의 공원을 특히 좋아한다. 센트럴파크는 기본, 원도심의 자유공원과 인천대공원도 자주 찾는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을왕리 해변도 잊을 수 없어요.” 가족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엽서 뒷면에 그려진 여행지처럼, 꿈속에 바라던 타국의 어느 도시처럼. 인천의 하늘과 땅, 바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추억이 됐다.



family Claude Andre Drolet

인천 사람이
되어버린
캐나다 남자



듬직한 아들 콜베르

한국인과 결혼에 골인한 캐나다인에게
인천은 제2의 고향이 됐다.

저기, 환한 얼굴의 세 사람이 르넷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클로드 Claude Andre Drolet 가족이다. 클로드와 르넷은 직장 동료다. 클로드 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다. 27년 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업무차 인천을 찾았다.

인연이었을까. 1년만 근무하기로 했던 것이 자꾸만 미뤄졌다. 그러던 중 한국인 아내를 만나 둘이 됐고, 아들 콜베르 Collbert Drolet가 태어나며 둘은 다시 셋이 됐다. 계속 인천에 머물던 가족은 10년 전 캐나다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이내 향수에 젖었다.

“2년을 채 못 넘기고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가족에게 이미 인천은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인천 사람’이에요. 한국인 아내만큼 저도 이곳을 잘 알고, 아들 콜베르와 우리 모두 이곳을 사랑하니까요.” 그는 “여생을 아내의 나라에서 살아보기로 했다”며 싱긋하고 웃었다.

그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듬직한 아들까지, 캐나다와 한국의 DNA와 문화를 공유하는 글로벌 인천 속 글로벌 가족은 그렇게 인천에서 내일의 행복을 여민다. 유난히 다사로운 한낮, 세상에서 가장 고운 밀도의 공기가 그들 곁에 머무는 것 같다.

우리로 하나 되는 ‘300만+인천 사람들’



르넷 Lynnette Grace Leonard

“유튜브에서 송도국제도시를 보자마자, 도시의 실루엣에 홀딱 반했어요. 곧장 송도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가족 프로젝트였죠. 이곳은 신과 인간이 함께 만든, 지구에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에다 Eda Rose Leonard

“인천은 새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세계인들에게 행복과 추억을 선물하는 도시입니다. 센트럴파크는 물론 인천대공원의 환상적인 벚꽃길,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을왕리 해변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클로드 Claude Andre Drolet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겐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이 글로벌 가족에게는 편안함과 친근함을 줍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죠. 제가 인천에 뿌리내렸듯이, 더 많은 외국인이 인천에 정착하길 바랍니다.”



콜베르 Collbert Drolet

“세계 모든 사람이 인천에서 처음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다들 놀라워하죠. 외국인 친구들에게 인천을 소개하면, 우리 가족이 속해있는 도시가 세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엄마의 나라에서 꿈을 키우며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요.”

66

전 세계 1,000만 시민과 함께

세계 10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인천.

진정한 글로벌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의 자세가 아닐까.

99



“꿈과 희망, 감동을 주는 도시” 인천 사람, 배우 신현준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HJ필름 제공



‘가정의 달’ 특집

인천시 홍보대사

S H I N H Y U N J O O N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국민배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184cm의 큰 키에 이국적인 얼굴이지만 이웃집 형 같은 친근한 이미지도 갖고 있다. 지난 2021년 셋째 딸의 탄생으로 다둥이 가족에 합류했다. 두 아들 민준, 예준과 딸 민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신현준의 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여서 인천과의 연이 깊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시 홍보대사로 지난 4월 5일 위촉됐다.



66

민준, 예준, 민서 모두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아이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이니깐요.

그래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99

Q. 인천시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합니다.

글로벌 도시, 인천의 홍보대사가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역사와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Q. 개인 SNS에 장문의 소감을 남기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위촉식 당일 글을 남겼는데요. 다둥이 아빠로서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신 것도 기쁘고, 여러모로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소감을 남겼습니다.

인천은 개항 도시로서 인천을 통해 종교와 신문물이 전파돼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킨 근대화의 시작점입니다. 제물포항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첫발을 내디딘 곳이자 한민 이민 역사의 출발지입니다. 제가 ‘하와이 코리안 페스티벌’ 홍보대사이기도 해서, 인천과 하와이의 특별한 관계와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Q. 다섯쌍둥이 가족이 홍보대사 동기네요. 만나보니 어떠셨어요?

다섯쌍둥이 덕분에 홍보대사 위촉식이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많이 웃고, 관중도 많아서 떠들썩했어요. 다섯쌍둥이 가족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특히 김진수 대위와 서혜정 소령은 건강하고 부자 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Q. 지난 2021년, 52세에 득녀하셨지요. 인천에서 다둥이 가족의 삶은 어떤가요?

민준, 예준, 민서 모두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이고, 교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도시의 활력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다둥이 가족

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무엇보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많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이니깐요. 그래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Q. 인천시만의 출생 정책, 1억 + i dream이 부모와 아이들,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발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과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죠.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느라 부담이 큰데 한시름 났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스마트폰도 사줘야 하고 지출이 커지는데, 오히려 초등학생 이상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없거든요. 다둥이 아빠로서 인천시의 출생 정책을 지지합니다.

Q. 인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인천은 저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주는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터전이니 꿈과 희망의 도시이지요. 아버지께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인천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한반도를 지켜냈는지 듣고 자랐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괄목상대하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한 인천의 오늘을 보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네요.

Q.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귀멸해 주세요.

하반기에 기독교 영화제와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출발지인 인천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면 뜻깊을 것 같습니다.

오월은 아이들의 계절입니다. 산들거리는 어린 이파리들을 타고 웃음 같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행복 음표가 춤추는 아이들의 봄 햇살 같은 하모니.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태어나 첫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Fly High(인천, 날아올라)’, 이들이 바로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이 있어, 세상은 내일도 봄날입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취재 영상 보기

귀 기울이세요 꿈과 미래가 들립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
창단 후 첫 무대를 앞두고.

두근두근, 첫 무대를 기다리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무대 위에서 텅 빈 객석을 바라봅니다. 몇 시간 후면 비어 있는 이 공간²⁰⁰⁰은 관객과 함께하는 공간²⁰⁰⁰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024년 4월 17일 오늘,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역사적인 첫 무대에 섭니다. 인천에 시립예술단이 새로 만들어진 건 1990년 시립 극단 창단 이후, 34년 만입니다. 꽃 피는 봄과 여름 사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내가 사는 인천은, 행복한 고향 / 문학산 정상에서 바람이 불면 / 엄마아빠 손잡고 공원에 나가 / 꽃향기 한가득 담아옵니다” - ‘고향의 봄’ 중에서

합창단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꽃피어 공중에 햇살처럼 흩날립니다. 연습이라지만 그 동안의 노력을 쏟아붓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본 무대에 선 것처럼 진지하고 열정이 넘칩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 뒤,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음소리와 재잘거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노랫소리만큼 맑고 고운 선율로 귓가에 감돕니다. “엄청 긴장되고 떨려요. 그래도 행복해요~. 신나요~.”, “목이 아플 만큼 연습했어요. 잘할 자신 있어요.”, “리허설 때 한 번 실수했는데, 괜찮아요. 잘해보자. 친구들아~.”

처음, 그것은 설렘이자 떨림, 나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아이들의 이 힘찬 ‘첫걸음’은 인생의 ‘큰 거름’이 될 겁니다.

Fly High, 인천, 날아올라

‘이제, 진짜 무대를 시작합니다.’ “하윤아 잘해.”, “윤솔, 서은~ 파이팅~~!” 정적을 깨고 하나둘 울려 퍼지는 격려의 목소리. 순식간에 온 객석이 응원의 열기로 휩싸입니다. 갑자기 환호성이 더 크게 쏟아집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저, 지휘자 아닙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점잖고 엄숙한 콘서트홀이 이렇게 활기차고 유쾌한 적이 있던가요?

“오늘은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태어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인천은 음악의 도시이고 합창의 도시입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은 세계적인 예술단입니다. 이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들이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책임지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의 꿈과 미래’를 지키고 키워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따스한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첫 공연이라 떨리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채워 더 자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Fly High(인천, 날아올라)’,
인천을 노래하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윽고 무대 조명이 켜지고, 조현경 상임지휘자가 첫 연주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50명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과 귀, 마음이 모여 천상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합창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옆 사람의 소리와 마음에 더 가까이 기울일수록 깊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됩니다. 맑고 곱게 퍼져나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관객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흐릅니다.

“파란 하늘 저 구름 너머 날개를 펼치고 Fly High / 새로운 길 더 넓은 세상 Fly High / 우리의 길을 열어 주고 세상의 길을 열어 주는 인천 / 우리 함께 날아 올라올라”
- ‘Fly High(인천, 날아올라)’ 중에서

아이들이 곧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처음, 그것은 설렘이자 떨림.
리허설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첫 공연을 기다리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

BACK STAGE

이날 합창단이 선보인 곡은 ‘노래가 만든 세상’, ‘함께’, ‘Fly High(인천, 날아올라)’, 인천을 행복한 고향으로 개사한 앙코르곡 ‘고향의 봄’. 그중에서 창작곡 ‘Fly High’는 인천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가슴속에 희망이 솟아나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내일, 더 큰 무대가 펼쳐집니다.’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첫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잘했어요. 한 달여 준비한 첫 공연을 이렇게 멋지게 해냈으니,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요? 힘내요.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합창단이 되는 그 날까지, 파이팅!”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연이 끝난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나래를 달아주었습니다.

인천은 음악의 도시이고, 합창의 도시입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은 세계합창연맹(IFCM)과 미국지휘자협회(ACDA)에서 세계 3대 합창단으로 뽑힐 만큼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의 관객이 인천합창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하여’. 인천 합창을 세계 무대 중심으로 끌어올린 윤학원 전 예술감독의 음악적 신념은, 그의 아들이자 현 예술감독인 윤의중 지휘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더 밝고 희망적입니다.

오늘, 인천에서 세상을 밝힐 눈부신 소리의 별자리가 새로 새겨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Fly High’,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넘어 세계로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린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첫 연주회

ON STAGE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7월 20일 아트센터인천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천사들의 합창’에 귀 기울여보세요. 삶에 행복이 오롯이 반짝일 겁니다.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예술단운영팀 032-420-2743



66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목소리가 화음으로 꽃피어 공중에 햇살처럼 흩어집니다.
‘Fly High’,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넘어 세계로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99

MINI INTERVIEW



백하윤 단원 인천일신초등학교 6학년
합창단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곡 ‘Fly High’의 가사는 설레는 제 마음과 비슷해요. 앞으로도 친구들과 같은 목표를 갖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임윤솔 단원 인천정각초등학교 5학년
연습하는 시간이 힘들기도 했는데, 노력할수록 음악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많은 사람이 우리 노래를 듣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조현경 상임지휘자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단원들과 봄꽃처럼 활짝 핀 연주회를 선보여 기쁩니다.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행복을 노래하는 시간, 예술의 향기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천 시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도 세계 무대에 설 만큼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박서은 단원 인천도담초등학교 5학년
무대에 서는 게 기뻐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친구들과 함께라서 떨리는 마음은 사라지고 즐겁고 신이 나요. 앞으로 열심히 노래해서 인천을 빛낼 테니 지켜봐 주세요.

장서윤 단원 송덕여자중학교 1학년
합창은 함께라서 좋아요. 각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또 인천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만큼, 열심히 노래해서 인천을 더욱더 빛내겠습니다.



왼쪽부터 백하윤, 박서은, 장서윤, 임윤솔 단원

INCHEON

‘인천의 꿈’은 언제나 깨어 있다

뜨고 지는 태양 아래 깨어 있는 꿈과 희망.
바다, 숲, 섬, 도시 곳곳에서 오롯이 반짝이는 300만 시민의 행복.
굿모닝부터 굿나잇까지, 모든 순간이 빛나는 도시.
IncheON, ‘인천의 꿈’은 언제나 깨어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Good morning
IncheON

06:00

매일 뜨고 지는 해이기에, 그 빛으로 살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
다. 이른 아침, 뜨겁게 솟구치는 태양은 살
아갈 힘을 준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심연의
바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마음을 끌다가
도 견잡을 수 없는 세찬 기운으로 압도해
온다. 그렇더라도 헤쳐가야 하고 헤쳐낼
수 있다. 어둠의 장막을 걷고 솟아오르는
새 빛은 찬란하다. 해는 ‘서쪽’에서 뜬다.



인천대교가 보이는 바다.
일출의 장엄한 풍경 속, 하루의 시작

Good afternoon
IncheON

140년, 격동의 역사를 지켜본
자유공원의 플라타너스(인천시 등록문화재 제2호)



© 류창현

12:00

그리워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나무에 마음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다. 140년,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거스르면 개항기와 맞닿는다. 오랜 세월 풍파에 파이고 덧대어진 단단한 몸체를 눈으
로 가만히 쓰다듬는다. 고목에도 연둣빛 새잎은 돌아나고 있었다. 오월, 햇살의 농도가 쌓이
고 싱그러운 앞사귀가 하늘을 덮었다. 이파리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다. 살아 있는
매 순간이 이토록 아름답다.



18:00

해가 뜨고 지고, 낮과 밤이 수없이 갈마드는 인생. 아침 햇살 받으며 일터로 향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며, 오늘도 우리는 잘 살아냈다. 역사는 동시대 사람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숨결이다. 사람과 사람의 호흡이 어우러져 이 거대한 도시에 발자취를 남긴다. 하늘빛이 시시각각 달라지다, 햇살보다 아름다운 노을로 부서져 내린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기겠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소래포구를 품은 남동구 논현동 일대.
하루해가 저물어 간다.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았다.’



24:00

섬의 밤은, 깊고 짙다. 바다는 킁킁른 빛이불을 덮고 고요를 베풀고 누워 곤한 잠에 빠져든다. 그 바다와 스르르 어우러지는 밤하늘엔 꿈이 서려 있다. 마음에 품은 소망 하나가 별빛에 닿아 반짝인다. 꿈의 조각을 하나둘 그러모아 은하수에 새기어본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빛이 스미고 번지어 가슴에 오롯이 깃든다.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면 가장 기대하는 순간 온전하게 와 있듯, 어둠이 질어야 별빛은 더 빛난다.

웅진군 굴업도의 깊어가는 밤.
인천의 168개 보물섬에 안기면, 가슴에 별이 뜬다.



인천 중심의 교통 시대가 온다.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향해 힘차게 달려온 민선 8기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고 시민 삶에 행복을 채운다. 1899년 인천에서 탄생해 2024년 인천에서 재도약하는 ‘철도 르네상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인천 아이패스’, 틈새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교통을 시민결애’*. 광역 교통망은 탄탄하고, 시민 곁을 달리는 도심 그물망은 촘촘하다. 오늘, 시민이 행복한 교통 혁명의 서막이 올랐다.

정리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일러스트 김원준

올 웨이즈 인천, 시민이 행복한 교통 혁명



66

다시 인천에서,
2024 철도 르네상스

1899년 9월 18일, 대한민국
철도가 인천에서 첫 기적을 올렸다.

인천역에서 출발한 경인선은
근현대 역사의 철로 위를 힘차게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그 길에서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한 새날이 밝아온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다시 인천에서, ‘2024 철도 르네상스’의
위대한 서막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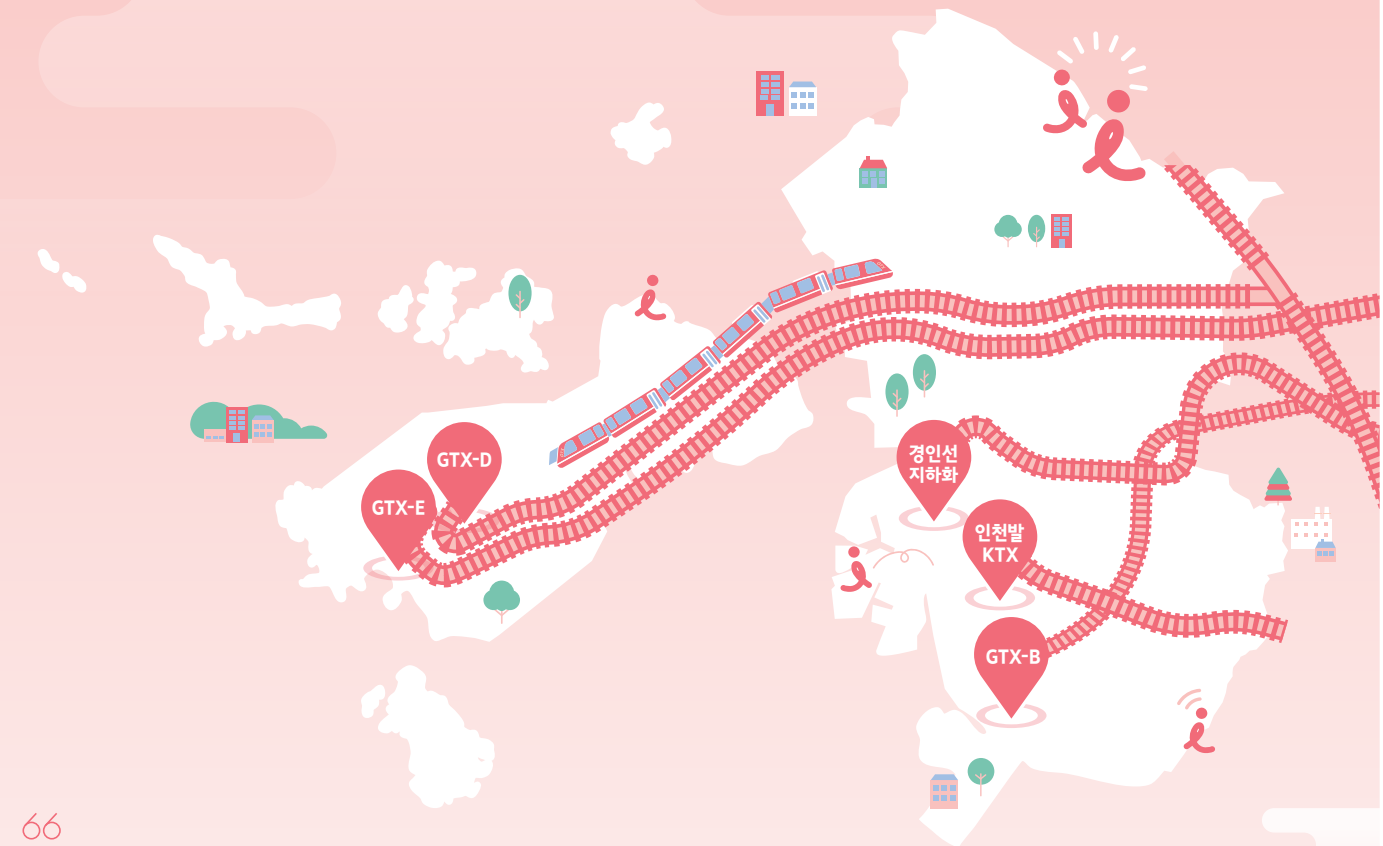
99

인천의 미래를 여는 탄탄대로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단 30분이면 간다. GTX(광역급행철도) 총 6개 노선 가운데 B노선, D노선, E노선 3개가 인천에서 출발한다. 지난 3월 7일 착공한 B노선이 2030년 개통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는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 혁명이 시작된다.

영종·청라국제도시, 검단, 계양 등 신도시의 광역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교통망에 날개를 단다.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연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에 착공한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입체 수직 공간으로 새 숨을 틔운다. 경제 발전으로 단절됐던 원도심이 다시 하나로 이어진다.



66

빈틈없는 노력, 빈틈없는 혜택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향해
힘차게 달려온 인천. 이제 빈틈없는
노력, 빈틈없는 혜택으로
시민 삶에 행복을 채울 시간이다.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진정성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 눈높이에서 만든
인천형 정책이 시민 삶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킨다.
민선 8기 취임 2년의 길목,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은
이미 시작됐다.

99

더 넓고 더 두텁게, 인천 아이패스

인천시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I-패스’가 5월부터 시행
된다.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인천형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
인천 I-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15회 이상부터 이용 비용
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정부의 K-패스 혜택인 대중교통 비용의 20%(청년층·고령자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없애 인천 시민에겐 무
제한 지원한다. 청년 범위도 19세부터 39세까지로 폭이 더 넓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비율은 30%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K-패스	I-패스
지원 지역		전국	전국
지원 기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횟수		월 최대 60회	무제한
지원 방식		이용자에 사후 환급	이용자에 사후 환급
지원 대상	일반	20% 환급	20% 환급
	청년	30% 환급	30% 환급
		19~34세	19~39세
	어르신	-	65세 이상 30% 환급
	저소득	53% 환급	53% 환급
이용 수단		전철, 시내버스(마을버스, 농어촌버스 포함) ※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포함	

교통을 시민결애^愛, 대중교통 틈새정책

정책 하나!

심야시간 ‘별밤버스’ 운행

※ 아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통을 시민결애^愛’. 올 하반기 중 심야 안심 ‘별밤버스’가 틈새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시작을 알린다.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달라 심
야에 지하철 막차에서 내린 후 막막한 시간대에 별밤버스가 달린다.
밤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40분까지로 노선마다 버스 2대가
한 차례씩 운행한다. 우선 인천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해 수
요가 많은 역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운행 요금은 서울 수
준을 고려한 2,500원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정책 둘!

지하철 ‘태그리스 게이트’ 도입

지하철 역사에는 ‘태그리스 게이트’를 도입한다. 태그리스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게이
트를 지나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게 된다. 태그리
스 방식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
놓으면 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와 짐을 든 승객의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며, 출퇴근 시간대
의 혼잡이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먼저 인천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에
도입할 예정이며, 인천1호선은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태그리스 설치 계획

사업 기간 2024년 1월~2025년 2월
설치 개소 62개 역 77개소(시범운영 중인 작전역, 주안역 2개 역 포함)
사업 내용 승강장 출구별 1개소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

정책 셋!

친절하고 안전한 ‘감동 택시 서비스’

시의 빈틈없는 노력에 인천 택시는 ‘시민감동 5대 친절 서비스’로 화답했다. 친절하고 안
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에스에스(SS, Smile-Safety) 택시 서비스 캠페인’에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지역 노동조합 단체인 전국택시노조인천본부, 민주택시노조인천
본부, 인천지역택시노조협의회 등이 동참한다. 이제 공항과 도심에서 택시 서비스의 풍
경이 달라진다. 시민감동 5대 친절 서비스는 ▲트렁크 짐 싣고 내려주기 ▲승하차 시 인
사하기 ▲택시 실내 청결 유지 ▲교통신호 준수 ▲목적지 및 운행경로 확인하기 등이다.



인천에서 깨어나다

인천, 'F1 그랑프리' 유치 시동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질주 본능!

몸 깊숙한 곳 어딘가에 갇혀 있다. 하지만 항상 꿈틀댄다. '자유'를 갈망하는 속성 때문이다. 유혹에도 취약하다. 쪽 뻗은 길, 막힘없는 공간과 마주하면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결국 억압의 사슬을 풀고야 만다. 봉인 해제다. 질주는 비로소 해방이 된다. 질주 본능은 전진의 원동력이다. 인천에서 질주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



지난 4월 6일 일본에서 열린 스즈카 그랑프리 현장

인천은 F1을 닮았다

포물러 머신(경주차)이 뿜어내는 엔진 굉음이 귀청을 때린다.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속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시속 300km를 웃도는 극한의 속도. 관중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스릴을 경험한다. 커브를 돌 때 감속과 급가속이 교차하는 순간에는 손에 땀을 쥔다. 비현실적인 속도가 눈앞의 현실이 되면서 도시는 열광의 도가니로 변한다.

2~3년 후의 어느 날, 인천 도심에서 펼쳐질지 모를 풍경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인천과 잘 어울리는 풍경이다.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12개 특급호텔, 재외동포청은 물론이고 15개의 국제기구가 있는 글로벌 도시 인천. 세계 톱 10 도시로 향하는 길목에서 F1의 시동이 걸리고 있다.

Formula One



1

©서터스톡

66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의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복합 카지노
리조트 등 고급 숙박시설을
다수 보유한 인천은 F1 개최의
최적지입니다. 도심 레이스로
진행되는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는
인천의 도시 잠재력을 꽃피워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키워나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99



2

인천, F1 유치 급물살!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부흥 이끈다!

휴일인 지난 4월 6일 토요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F1 스즈카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는 일본을 전격 방문했다. 스즈카 그랑프리
에 참석 중인 F1 최고책임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유 시장은
포뮬러원 그룹Formula One Group의 스테파노 도미니칼리Stefano
Dominicali 최고경영자(CEO)에게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
를 건넸다.

즉각 화답이 왔다. 의향서를 전달한 지 열흘 만인 4월 16일 F1
대회 프로모션 이사인 루이스 영Louise Young과 F1 서킷 디자인을
총괄하는 야르노 자펠리Jarno Zaffelli DROMO CEO, F1 한국 파트
너인 태화홀딩스 강나연 회장, 태화에스엔씨 니콜라 세노Nicolas
Chenot 대표 등 F1 그랑프리 대회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찾았다.

이들은 특히, 인천의 도심 서킷 대상지들을 둘러보고, 주변 시
설과 환경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 시는 곧바로 ‘F1 그랑프리 대회 전담 유치단’을 꾸리고 F1
한국 파트너인 강나연 회장 등과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를 위
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일련의 과정이 F1 머신의 스피드를 방불케 한다. 점점 가속도
가 붙으면서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왜 인천인가?

우리 시는 서킷(전용 경기장)에서 진행된 일본이나 중국 대회와 달
리 모나코나 라스베이거스처럼 도심 레이스로 대회를 추진 중이
다.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2026년 또는 2027년 첫 대회를 개최한 후 최소 5년 이상 매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해 ‘2015 프레지던츠
컵’(아시아 최초), ‘2018 세계검도선수권대회’, ‘2018 LPGA 인터네
셔널 크라운대회’ 등 다수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마이스 복합지구, 특급호텔, 각종 국제기
구와 기업이 들어선 국내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어
대회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
다는 평을 받는다.

F1 등 모터스포츠는 첨단 기술과 거대 자본이 결합된 스포츠 종목
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모터스포츠를 ‘프로스포츠의 꽃’으로 부
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우리 시의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는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의 부흥
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지난해 1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서킷(6.2km)에서는 F1 그랑프
리 대회를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모여든 인원만 약 32만 명에 이르
렀다. 이 대회로 라스베이거스가 누린 경제적 효과는 최소 13억 달
러(1조 7,505억 원)로 추산된다.

F1 그랑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경주 대회로, 고성능 차량과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참가하며,
전 세계에서 6억 명이 시청한다. 공식 명칭은 FIA 포뮬러원 월드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다. 보통 ‘F1’ 또는 ‘포뮬러원’이라고 한다.
F1 경주의 차량 규격은 배기량 1600cc, 6기통으로 포뮬러 경주 중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한다. 포뮬러 머신(경주차)은 분해해서 부품 형태로 항공 운송
한다. 해당 차량 가격은 100억 원대로 모터스포츠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모터스포츠가 아직 비인기 종목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위
상이 대단하다. 성공한 F1 드라이버는 국가 행사에 초청받거나 기사 작위를 받기도 한다.



3

©서터스톡

- 1, 3 — 라스베이거스 F1 서킷. 관람객 32만 명, 경제 효과 최소 13억 달러의 세계적인 축제이자 스포츠로 손꼽힌다.
- 2 —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를 전격 방문한 유정복 시장이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CEO 등 포뮬러원 그룹 책임자를 만나 투자 의향서를 전달했다
- 4, 5 —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 현장.



4



5



나의 인천, 우리 가족의 인천



글 김중미 작가

2000년, 작가는 인천 동구 만석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펴냈다.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 100일 만에 경기 북부에 있는 도시로 이사 가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 청소년 시기에 인천으로 다시 이사 와 계속 인천 시민으로 살고 있다. 인천 구도심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스민 곳이 많다. 내가 태어난 곳은 중구 송학동3가 5번지다. 외가는 오랫동안 송학동에서 살았고 친가는 1·4후퇴 때 피란 와 그곳에 자리 잡았다. 송학동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조계 지역이었다. 해방 뒤 일본인이 돌아가고 빈집으로 남은 적산가옥이 한국인에게 불하되었지만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빈집이 되었다. 1·4후퇴 때 피란 온 친가와 일가친척들은 폭격 맞아 골조만 남은 이와이 병원과 그 근처 적산가옥에 들어가 살았다.

우리나라 최초 도선사인 유항렬 도선사에 이은 두 번째 도선사였던 외할아버지는 1·4후퇴 때 유항렬 도선사와 함께 인천항에 있던 배들을 피항시켰다. 그리고 유항렬 도선사가 부산으로 피란 가자 인천에 홀로 남아 날마다 인천항을 오갔다. 부산으로 피란 갔던 엄마가 인천 외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것은 휴전 협상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연애를 시작했다. 6년간의 연애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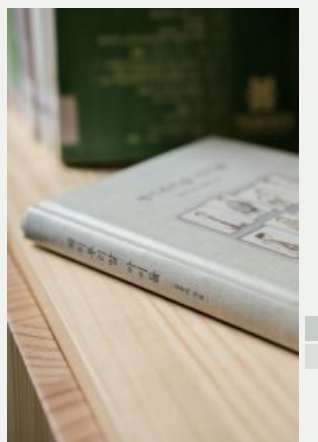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의 풍경

에 두 사람이 결혼한 곳은 지금 크라운볼링센터 자리에 있던 낙원예식장이었다. 개항기 때 미국인 윌터 타운센드가 한국 최초로 설립한 근대식 정미소 담손이방앗간이 해방 뒤 댄스홀(카바레)로 운영되다가 낙원예식장으로 잠깐 운영되기도 했다. 엄마, 아버지는 현악 3중주단이 웨딩마치를 연주하던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친가는 내가 초등학교 때 송학동에서 관동으로 이사를 했고 내내 그곳에서 살았다. 청소년기 중반까지 인천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살았지만, 명절이나 방학 때는 인천에 와서 지냈기 때문에 관동, 송학동, 향동, 신포동, 내동, 해안동 등 동인천 곳곳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배어 있다. 엄마 아버지는 신포동이 나 내동, 싸리재를 함께 걸을 때마다 그 골목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경인면옥, 중화루처럼 엄마 아버지가 연애했던 때 다녔던 음식점이나 애관극장, 동방극장에 가면 두 분의 연애 시절을 추억했다.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 나는 딸들에게 엄마에게 들었던 엄마 아버지 연애 이야기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우리 부부 역시 개항장 부근과 동인천이 주요 데이트 코스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3대에 걸쳐 이어온 인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나는 딸들을 키우며 물질적인 풍요 대신 그 이야기들을 물려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야기의 힘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거센 비바람이 불더라도 뿌리가 단단하면 쉽게 뽑히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2000년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출간하며 작가가 된 나는 한 동안 함께 작업해 보자는 출판사의 권유를 여러 번 거절했다. 난생처음 쓴 소설로 작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고, 앞으로 어떤 작품을 써야 할지 더 고민이 필요했다. 그러다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쓸 때처럼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편해서 외면하는 주변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쇠락해 가고, 지워져 가는 인천 구도심의 풍경을 글로라도 남기고 싶었다. 더러 인천과 강화와 가까운 김포가 작품의 무대가 되긴 하지만 내 작품의 주요 무대는 인천이다.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

©화도신문화원



1955년 3월 연극 전문 극장으로 개관한 시민극장.
1960년대 인천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해오다
2001년 9월 문을 닫았다.(위)

‘애관극장 2관’이라는 희미한 글자가 붙어 있지만,
이 극장은 원래 1970년대 초 개관한 ‘오성극장’이었다.(아래)

66
아이들에게 미림극장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새로 지은 화려한 건물보다
낡고 허름해도
지난 시간과 이야기가 담긴 건물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99

나는 작품 속에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지도 모르는 인천을 묘사한다. 언젠가 작품 속에 꼭 넣고 싶은 공간이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영화를 좋아하던 우리 가족은 인천의 영화관에 얹힌 기억이 제법 많다. 엄마는 신포동에 갈 때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데이트할 때 갔던 표관(키네마극장)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 엄마 아버지가 데이트할 때 자주 갔던 동방극장, 키네마극장 그리고 애관극장에 얹힌 이야기도 자주 했다. 20대 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때 나는 인천이 문화가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 엄마가 말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 서울이 너무 커져서 그래. 인천에서 클래식 연주회나 유명 작가, 정치인의 강연도 많이 열렸어. 그리고 영화관은 인천이 더 빨리 생겼고, 공간에 비해 수도 많았어. 우리 때는 문화적으로 인천이 서울에 뒤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 지금은 서울에 모든 것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인천은 인천대로 서울과 다른 역사랑 문화가 있는데 그게 묻혀서 그렇지. 안타까워.”

청소년 시절 문화극장, 미림극장, 애관극장에 가면 서울과 동시에 개봉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인천극장, 현대극장, 자유극장 등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동시 상영 극장이라 가보지 못했지만, 중앙시장 안에 있던 오성극장은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삼촌들을 따라다녔다. 초등학교 때 이후 오성극장을 갈 기회가 없었는데 남편과 연애할 때 찰리 채플린 영화를 시리즈로 상영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가게 되었다. 오성극장에 들어가는 순간 몽클했다. 초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미림극장이 영화를 상영하지 않은 지는 꽤 되었지만 가끔 기획전을 할 때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갔었다. 아이들에게 미림극장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새로 지은 화려한 건물보다 낡고 허름해도 지난 시간과 이야기가 담긴 건물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딸들이 어렸을 때는 애관극장과 인형극장을 주로 갔는데, 딸들이 청소년 무렵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2001년 강화로 이사 온 뒤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영화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김포나 인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가야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애관극장이나 인형극장을 이용했다. 인형극장마저 문을 닫고, 딸들이 대학에 간 뒤에는 예전만큼 영



강화작은영화관의 내부 모습

화관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에 내가 살고 있는 강화에 작은 영화관이 생겼다. 우리 부부는 ‘강화작은영화관’ 덕에 다시 영화를 즐기게 되었다. 다만 단관이라서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없어 예술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공간주안’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강화작은영화관’에도 씨네브런치 시간이 생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볼 기회가 늘었다. 그러고 보니 인천은 ‘영화공간주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마을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있고, 생태 환경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마을은 사람들의 생태 환경이다. 공동의 기억과 이야기를 가진 마을에서 살아갈 때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외롭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게 인천은 조부모,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추억이 있는 곳이고, 내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간 곳이다. 나는 앞으로도 이 인천에서 이야기를 찾고 짓고 만들어 갈 것이다.

66
마을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있고,
생태 환경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마을은 사람들의 생태 환경이다.
공동의 기억과 이야기를 가진 마을에서 살아갈 때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외롭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99



영화공간주안

2025 APEC INCHEON

2025 APEC 정상회의 이제는 인천입니다!

우리 시가 2025 APEC 유치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4월 19일, 우리 시는 외교부에 유치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달 있을 현장 심사와 시도별 유치 계획 설명회다. 준비는 완벽하고, 자신감도 충분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우리 시는 지금까지의 땀과 노력에 경쟁 도시를 압도하는 탁월한 경쟁력, 1,000만 시민의 뜨거운 열원을 앞세워 6월 승전고를 울릴 계획이다.

2025 APEC

전 세계 **21**개국
6,000여명



2025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에는 21개국 정상을 포함한 최고위급 인사 6,000여 명이 참여해 정상회의를 비롯해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기업회의 등을 열 예정이다.

경제 효과

직접 **523**억 원
간접 **1조 5,326**억 원
부가가치 **8,380**억 원
취업 **2만 571**명



우리 시가 이번 APEC 유치에 성공할 경우, 약 523억 원의 직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조 5,32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3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만 571명의 취업 유발 효과 등 간접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경험

No. **1**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과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같은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 역시 우리 시의 유치 성공의 기대감을 높인다.

탁월한 경쟁력

세계 **10**대 도시



우리 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세계 10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포진해 있고, 15개의 국제기구와 다수의 글로벌 대학을 보유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으로 대변되는 탁월한 접근성, 송도컨벤시아 등 세계적인 국제회의 인프라와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 최고의 숙박시설 등 월등한 개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유치 신청서 제출

4월 19일



우리 시는 4월 19일 외교부에 유치 신청서 제출을 마쳤다. 유치 신청서에서 APEC이 추구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했다.

결전의 날

2024년 6월



유치 신청서 제출을 마친 우리 시는 5월 현장 심사와 시도별 유치 계획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6월, 최종 개최지가 확정된다. 우리 시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력 대응해 1,000만 시민의 뜨거운 열원에 응답할 계획이다.

APEC 유치 추진 일정

- **2022년** 12월 범시민유치위원회(110명) 출범
- **2023년** 5월~8월 100만 서명 운동 전개(110만 달성)
- 7월 APEC 회원국 재외공관장 간담회
- 10월 APEC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인천 포럼
- 11월 세계 정상급 석학 비노드 아가왈 석좌교수의 APEC 특강



66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시는 도시의 역량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9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뜻하는 APEC은 세계 인구의 약 40%,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총교역량의 50%를 점유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협력체다.





‘지구의 날’ 특집

인천의 친환경 기업을 가다

인천종합에너지(주)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 탄소중립 달성 위한 노력 돋보여
- 미활용 에너지 활용해 지역냉난방 공급
- 대기질 개선 위해 10월부터 고효율 촉매 사용
- 환경성적표지 인증 이어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면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단 하나의 돌파구임은 분명하다. 그 돌파구는 바로 ‘탄소중립’(Net-Zero)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게 목표다. 우리 시는 여기에서 5년을 앞당겼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친환경 기업 인천종합에너지(주)를 찾아 탄소중립 5년 조기 달성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송도열병합발전소 준공석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에 자리 잡은 인천종합에너지에 들어서자 큰 돌(준공석)에 새겨진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한 에너지 세상’이란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행복한 에너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중앙제어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수많은 모니터가 열 및 전력과 관련한 갖가지 정보를 담은 숫자를 실시간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연신 자판을 두드리는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지역난방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30.8% 높습니다. 또 지역난방은 개별 난방과 비교해 대기오염물질이 71%, 온실가스가 55%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요.” 중앙제어실에서 만난 이경진 기술본부장은 지역난방의 장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및 원도심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공동주택 8만 2,000여 세대, 업무용 건물 188개소, 공공용 건물 34개소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가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냉난방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인천종합에너지 연간 열판매량의 40% 이상은 무탄소 미활용 에너지다. SK인천석유화학, 현대제철 등 산업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열과 소각폐열 등을 회수해 지역냉난방 공급에 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만 8,000톤의 LNG를 대체하고 약 7만 7,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난방업체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더불어 유일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업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탄소발자국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제품의 환경성을 분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3월에는 인천시 지역난방업종 중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취득했다.

열병합발전 설비



인천종합에너지는 탄소제로로 가는 여정에서 오는 10월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시도를 한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운영 중인 탈질설비(SCR)의 촉매를 신규 고효율 촉매로 교체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존 탈질설비는 저온 구간(초기 구간)에서 촉매의 성능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또 저온 구간에서도 저감 효율이 보장되는 촉매는 대부분 외국산인 터라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다. 국내 고효율 촉매 기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했는데 인천종합에너지는 이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부지 제공 및 현장 기술개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기술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고효율 촉매 도입은 대기질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현재 인천시 조례상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23ppm으로, 인천종합에너지는 이보다 낮은 6ppm을 자체 관리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고효율 촉매를 통해 5ppm 이하로 줄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제어실에 이어 발전 설비와 온수 탱크인 축열조 등을 돌아본 뒤 회사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행복한 에너지 세상’이란 문구와 맞닥뜨렸다. 에너지 없이 세상은 돌아갈 수 없다. ‘행복한’이란 수식어는 ‘친환경적’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인천종합에너지(주)환경 관련 수상 실적

- 2019년 환경의 날 국무총리상
- 2019년 수도권대기환경청 주최 ‘총량관리사업장 평가’ 최우수상
- 2021년 인천광역시장 표창
- 2021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표창

CULTURE
CALENDAR

05
MAY 2024

<div>03 금</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24 가족음악회 ‘Shall We Dance?’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04 토</div> <div>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 ‘생각의 여름’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공동 기획 ‘달 사베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4~5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토끼석 6만 원, 늑대석 4만 원 032-500-2057</div> <div>히사이시 조 영화 음악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070-4190-1289</div> <div>05 일</div> <div>2024년 봉축법요식 행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3시 무료 032-440-3972</div>	<div>시릴 에메 내한 공연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오후 7시 R석 7만 7,000원, S석 5만 5,000원 0507-1370-6160</div> <div></div> <div>2024 부평 키즈 페스티벌 ‘놀이, 터 가는 길’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오전 10시~오후 5시 무료 032-500-2052</div> <div>06 월</div> <div>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 ‘모호 프로젝트×더 원스’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11 토</div> <div>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032-453-7700</div>	<div>17 금</div> <div>제1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막식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032-440-3992</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 II ‘브루크너 제8번’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div> <div>18 토</div> <div>THE SCENE 2024 ‘블랙홀×화이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파벨 하스 콰르텟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032-453-7700</div>	<div>19 일</div> <div>THE SCENE 2024 ‘크래쉬×PNS’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봄의 클래식 콘서트 with 포르테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VIP석 14만 3,000원, R석 12만 1,000원, S석 9만 9,000원, A석 7만 7,000원 032-710-6563</div> <div>22 수</div> <div></div> <div>2024 커피 콘서트 III 책 읽어주는 큐레이터 ‘리어왕’ 동구문화체육센터 오후 2시 전석 1만 5,000원 032-420-2000</div> <div>마티네 콘서트 ‘신창용의 뮤직 라운지’ 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전 11시 전석 2만 5,000원 032-453-7700</div>	<div>23 목</div> <div>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I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032-453-7700</div> <div></div> <div>24 금</div> <div>스테이지149-2024 인천열전 ‘맛있는 현대무용 페스티벌’ 송도 트라이보울 24~25일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032-420-2000</div> <div>25 토</div> <div>THE SCENE 2024 ‘제로지×KOP’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ACI 패밀리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3시 전석 1만 원 032-453-7700</div>	<div>26 일</div> <div>THE SCENE 2024 ‘블랙신드롬×아웃사이더스’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6시 무료 032-519-9601</div> <div>29 수</div> <div>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032-453-7700</div> <div>30 목</div> <div>스테이지149-어린이 명작 무대 예술로 풍당 연극 ‘토끼 강충’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30~31일 오전 10시 30분 전석 1만 5,000원 032-420-2000</div> <div>2024 브런치 콘서트 ‘변주, 새로운 시작’ 5월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2만 원 032-500-5057</div>
--	---	---	--	--	--

이달의 전시

세계의 나그네, 김찬삼
영종역사관
5월 31일까지
032-746-9901



막, 다른 골목-
송림동 혈떡고개 이야기
우리미술관 전시관
6월 16일까지
032-764-7663~4



어울려, 봄
서창생활문화센터
6월 25일까지
0507-1428-5021



이영란의 감성체험
가루나무모래흙
남동소래아트홀
6월 29일까지
0507-1401-5710



남동구 문화재 특별전
소래역사관
6월 30일까지
032-439-5003

시골 쥐의 도시 여행
인천도시역사관 3층
어린이전시실
오픈런
032-850-6000

공연 맛보기



‘제1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5월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서 개막식 개최

제1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5월 17일 오후 7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올해 개막식에는 디아스포라(이주민)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김윤아와 장기하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특히, 장기하는 최근 디아스포라 주제 영화인 ‘패스트 라이브즈’에도 출연한 바 있어 의미가 크다. 제1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상영 프로그램 등 상세 일정은 오는 5월 초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선

視線

세월 흘러도 변치 않을
우리 가족 이야기

오늘, 시민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추억 담긴 시민들의 가족사진을 들춰봅니다. 오랜 세월 지나 빛바랜 앨범부터, 시대상이 반영된 새로운 가족의 모습까지... 시간과 공간은 달라질지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함없을 우리네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복곱게입고 #사랑하는아이들과 #남편도사랑해

첫 번째 시선

우당탕탕~ 바람 잘 날 없는 매일이지만, 결국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은 오직 가족입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제법 의젓해진 첫째 딸아이와 수줍음 많지만 누구보다 정 많은 둘째 아들, 마냥 사랑스럽기만 한 막내가 있어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지연(남동구 논현로)



2
3

#추억속앨범 #귀여운세남매 #다복한가정

두 번째 시선

오랜만에 서랍 속 앨범을 뒤적여봅니다. 1988년 2월 15일, 첫째 딸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 속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어리고 철없던 세 남매는 어느덧 사십을 넘겼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나란히 자식 셋씩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복한 가정, 그 행복이 영원토록 이어지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순희(계양구 봉오대로)

#가족의탄생 #먹깨비같은깨비 #건강하게태어나자

세 번째 시선

지난해 둘에서 하나가 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셋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이젠 안정기에 접어들어 조금은 마음 편히 새 가족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말 세상과 만나게 될 우리 아들 깨비아! 엄마 아빠에게 축복처럼 와줘서 고마워! 꼭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랄게♥”

정소화(연수구 원인재로)

#송도해돋이공원 #가족나들이 #모든가족파이팅

네 번째 시선

완연한 봄의 시작. 송도국제도시 해돋이공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가족들이 의지하고 힘이 되며 주어진 삶을 굳건히 살아냈으면 합니다.

박금녀(연수구 독배로)

#귀여운호빵이 #새로운가족 #푸들과비송

다섯 번째 시선

우리 집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호빵이. 몽글몽글 폭신하고 새하얀 털이 동그란 호빵을 닮은 귀여운 녀석입니다. 그토록 갖고 싶던 새 가족을 맞이하게 해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약속대로 살뜰하게 챙기며 잘 키우겠습니다!

김예랑(서구 가정로)

4
5



‘반려동물’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1. 주제에 맞는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2.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과 사연이 소개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IMAGE NEWS

66 인천의 소상공인은 달라야 하기에 99 인천만의 방식으로 확실하게 지원합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전국 최초

‘반값 택배’는
성장의
주춧돌입니다

#소상공인 위한 ‘반값 택배’ #전국 최초
#지하철 57개 역사 활용 친환경 공동 물류망 조성
#물류비 절감, 빠른 배송 #택배도 탄탄대로

01



전국 유일

‘인천e음 캐시백’은
상생의
디딤돌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가맹점 대상 12% 캐시백
#시민은 혜택 증가,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지역 경제 선순환 #골목 경제 살리는 인천e음

02



전국 최고

‘분쟁 해결’은
신뢰의 버팀목입니다

#가맹 사업 거래 분쟁 조정 #소상공인에 큰 힘
#나홀로 점포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
#최근 5년간 총 80건 가맹 사업 거래 분쟁 처리

03



📢

인천 소상공인 여러분,
“부자 되세요!”

#회복과 새로운 도약 위한 정책 발굴
#민선 8기 2년의 길목 #빈틈없는 노력, 빈틈없는 혜택
#‘돈쫓’나기를 응원합니다!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1 ——— 우리 시가 **대한민국 제1호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액화수소 충전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 최대 120대의 수소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 2 ———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38만 명에게 반값 택배를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을 위해 우리 시는 1단계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도시철도 1·2호선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집화센터를 설치한다.
- 3 ——— 우리 시가 올해 지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3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물류산업 안전 관리 강화, 친환경 물류 장비·기반 시설 확충, 항공정비산업(MRO) 등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 4 ———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총 12억 8,000만 원(국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5 ——— 우리 시가 **63만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정보를 ‘인천시지도포털’에 시각화해 공개**했다. 그간 텍스트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번과 m²당 가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으로, 광역시 최초 사례다.
- 6 ——— 우리 시가 일상생활 속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안심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공공 심야 약국을 3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INCHEON NEWS

글로벌 투자유치, 발로 뛰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방콕시 주지사와 태국 최장수 기업인 비그림 그룹 회장을 차례로 만나 교류 협력과 인천에 대한 투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차드차트 시티판트 방콕시 주지사와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문화·관광·과학·기술·산업·교육 분야 협력, 공무원 교류 장려, 연례 회의 또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우리 시와 방콕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류 협력과 상호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비그림 그룹 해럴드 링크 회장과 만나는 등 한태교류전 승마 대회 인천 유치에도 직접 발 땀 흘려 나섰다. 시는 승마 대회가 승마 문화 활성화와 도심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국제교류증진과 032-440-3202

외국인 근로자들도 인천 가족입니다

우리 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인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우리 시는 공모를 통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에 대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에는 3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수강 등록했다. 센터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양질의 고충 상담과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E-7-4) 비자 전환 인천시 추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시 디아스포라유산과 032-440-1563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우리 시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우리 시는 올해 총 12억 8,000만 원(국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일원이 지정되어 2019년부터 6년 연속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우리 시는 국제회의의 집적 시설 홍보 및 편의 시설 개선 지원, 국제회의 복합 지구 브랜드 홍보 및 유치 마케팅, 마이스 참가자 대상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이동 편의 개선, 지역 문화·관광 자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송도국제회의의 복합지구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시 관광마이스과 032-440-4102

중국과의 우호 협력 강화



중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에 참석해 인천의 탄소 중립 비전과 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2045 인천광역시 탄소 중립 전략’을 소개하고, 화력발전 무탄소 발전 전환,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녹색 건축물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발표는 인천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두세계원예박람회에서 열린 ‘국제우호관 개관식’에 참석해 인천시 전시관을 둘러봤다.

문의 시 국제교류증진과 032-440-3232

인천에 등지 튼 BMW 그룹 연구개발센터



청라국제도시에 BMW 그룹 연구개발센터 코리아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2015년 인천 BMW 드라이빙 센터 내에 처음 개소한 BMW 그룹 연구개발센터 코리아는 BMW 그룹 내에서 유럽 제외 글로벌 다섯 번째로 인천에 설립된 연구개발 시설로, 사무 공간과 정비 및 실험실, 인증 실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는 차량 인증, 전기화 기술 검증 등을 위한 최신 시설이 갖춰졌다. 이곳은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의 인증, 제품 개발 업무 지원, 국내 기업, 연구시설 및 대학들과 협력해 프로토타입 등을 함께 개발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의 IFEZ 신성장산업유치과 032-453-7382

광역시 최초 개별 공시 지가를 한눈에

우리 시가 63만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정보를 ‘인천시지도포털’에 시각화해 공개했다. 그간 텍스트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번과 ㎡당 가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으로, 광역시 최초 사례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23개 토지 특성을 국가에서 결정한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될 정보는 용도 지역, 토지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토지 특성과 ㎡당 가격으로 ‘인천시지도포털’의 연속 지적도에 시각화되어 있다. ‘인천시지도포털’은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연속 지적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문의 시 토지정보과 032-440-4562

물류 경쟁력 강화에 2,330억 원



우리 시는 올해 지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시비 547억 원을 포함해 총 2,330억원을 투입한다. 물류 기반 시설 확충 차원에서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도로를 비롯한 미집행 도로망을 개설하고 남항 배후 단지 조성을 지원해 물류 거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산업 안전 관리 강화, 친환경 물류 장비·기반 시설 확충, 항공정비산업(MRO) 등 인천 특화형 물류 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의 물류정책과 032-440-3872

‘365일 안심’ 응급 의료 체계 강화

우리 시가 일상생활 속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안심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평일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심야 시간(밤 10시~새벽 1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 약국을 26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고정형 자동심장충격기 60대를 확충하고, 응급처치 교육 기관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응급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의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3

INCHEON NEWS

글로벌 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우리 시의 글로벌 항공정비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에서 첨단복합항공단지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기공식이 열렸다. 이번 기공식은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 기반 시설 공사, 이스라엘 IAI사의 화물기 개조 사업을 위한 격납고 신축 공사, 아틀라스 항공의 중정비센터 예정지인 화물기정비단지 부지 조성 공사 등 주요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총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3월 착공한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과 함께 IAI사의 화물기 개조사업 및 아틀라스 항공의 중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2027년에는 2,500여 명의 항공정비 분야 직접 고용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수출 효과는 1,600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의 시 항공과 032-440-4807

5월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 벗어요

우리 시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방역 조치, 의료 지원, 감시 대응 체계 부분이 조정된다. 첫째, 방역 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가 권고로 바뀌게 되고,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 둘째, 의료 지원은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의료 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셋째, 감시·대응 체계는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인천시 및 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시 감염병관리과 032-440-7802

대한민국 제1호 액화수소 충전 시대 개막



우리 시가 대한민국 제1호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액화수소 충전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 최대 120대의 수소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 속도는 1분에 2kg으로 1분에 1kg을 충전하는 기체수소충전소에 비해 보다 빠르게 많은 양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체수소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충남 서산, 경기도 평택 등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는 반면 액화수소충전소는 우리 시 관내인 서구 원창동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수소 수급도 보다 안정적이다. 우리 시는 2020년 셔틀버스용 수소 버스 7대를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수소 시내버스 8대를 보급하는 등 현재까지 126대의 수소 버스를 보급했다.

문의 시 에너지산업과 032-440-4303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살 예방 전문가를 양성한다. 우리 시는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실용적 자살 중재 능력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살 응급처치 및 초기 대응에 대한 이론 교육 후 역할극을 통한 각종 자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 시는 자살 응급처치와 자살 위험자 중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전담 인력의 위기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032-440-1583

인천 청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드림포^{For}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우리 시의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청년 근로자 3,024명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정 인원도 지난해 834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높였다. 우리 시는 드림포^{For}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다각적인 청년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7

아시아 최대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의 시작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의 아시아 최대 규모 글로벌지놈센터 건립이 본격 착수한다. 대기업 위주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주를 이루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산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마크로젠의 송도글로벌지놈센터 착공식이 개최됐다. 마크로젠은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 구축을 진행한다. 송도글로벌지놈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마크로젠 지놈센터가 송도 글로벌지놈센터로 확장 이전돼 통합 운영된다.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연구 시설이 들어서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바이오 산업 구조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IFEZ 신성장산업유치과 032-453-7374

인천기계공고에서 4·19 혁명 기념식 개최



인천시교육청이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 교육청 소통협력담당 032-420-8137

시민을 위한 행정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시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국정 주요 시책 합동 평가’에서 국민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리 시는 전국 시·부·市에서는 유일하게 제출한 2건이 모두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행정 사례를 선도적으로 시행했음을 보여줬다. 특히, ‘119 출동길 따라 인공지능(AI) 신호 등이 막힘없이 뺑뺑’과 ‘정당 현수막 아웃^{OUT}’ 그리고 임신 출산 안심 환경 조성 우수 사례인 ‘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 시 평가담당관 032-440-2492

COUNCIL NEWS

지역 간 균형 있는 상생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구간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되어 환경 피해와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지역 간 상생 연결 방안과 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인천시의회는 사업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심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감한 용적률 상향 및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 사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공공이 직접 선도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과 앵커리지가 다시 이어지도록



인천시의회가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과 만나 인천~앵커리지 직항 노선 개설을 비롯한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는 경유 노선으로 14시간이 소요되지만, 직항 노선이 다시 개설될 경우 8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천시의회는 알래스카주 한인 동포 7,000여 명의 숙원인 인천~앵커리지 직항 노선이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며 한국 교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인천시의회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의회와 1993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해 3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 유일 공공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인천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한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병상 이용률이 급감했다. 인천시의회는 추가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조직 슬림화를 통한 지출을 줄이고 특화 진료 과목 신설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 인천 유일 공공 의료원의 역할을 확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면밀하고 투명한 2023 결산 감사



인천시의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인천시의회 박판순·유경희·신성영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에게 결산 감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가 적법하게 낭비 없이 쓰였는지에 대한 면밀하고 투명한 결산 감사를 당부했다.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초·중·고·대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인천시의회와 함께한 꿈나무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66
의회가 우리 인천이 더 살기
좋아지도록 하는 고마운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천백석중학교
4월 3일 신충식 의원과 함께

99



66
의원님들처럼 본회의장에서 발표해본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인천간석초등학교
4월 17일 신동섭 의원과 함께

99



66
저도 의원님처럼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천중산초등학교
4월 19일 신성영 의원과 함께

99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대학생 의정 교실 | 스피치 특강, 모의 의회를 통해 직접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본회의 체험 교실 | 인천시의회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
참여 문의 | 의사담당관실 032-440-8145

5월 인천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

[제294회 임시회]

기간 | 5월 9일~20일(12일간) 주요 안건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인천의정소식> 구독 안내

인천시의회의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의정소식>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6



<인천의정소식>
바로 가기



여기,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달리는 인천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천의 찬란한 내일을 여러분의 빛깔로 색칠해 주세요. 새하얀 공간이 시민의 색으로 물들어갈수록, 인천의 행복한 미래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인천의 눈부신 오늘과 찬란한 내일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생태와 문화로 가득할 내일의 부평 캠프마켓

우리 시가 ‘2024 부평 캠프마켓 시민 참여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부평 캠프마켓을 생태 습지와 도시 숲, 역사·문화 공간, 시민 문화 마당, 도시공원 등 5개의 공간 축으로 나눠 공원으로 조성하는 마스터플랜 초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 습지에는 맹꽁이 서식처 관찰 데크와 예코 광장 등이 조성되며, 도시 숲에는 피크닉장과 숲 체험 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역사·문화 공간은 조병창 특화 시설과 캠프마켓 기록관, 인천 식물원 등의 무대가 되고, 시민 문화 마당은 복합 문화 공간과 캠프마켓 전망대, 메모리얼 수경 시설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채워진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에는 철길 정원과 캠프마켓 숲길, 문화 복합 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캠프마켓 내부 옛 소방서, 소형 탄약고, 사병 식당, 휴양 센터, 조병창 공장, 다목적 저장 시설을 활용해 체험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 조병창 특화 시설, 소규모 공연장 등을 탄생시킬 계획이다.



5월, 다시 시민들에게 문을 연 부평 캠프마켓



2024년 4월호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이재훈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신은희 계양구 동양로



이조은 연수구 능허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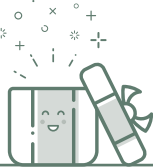


김선 서구 고산로



장별 동구 화도진로

우리 시가 부평 캠프마켓의 내일에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더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까지 부평 캠프마켓에 두 번째 지방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관계 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 작가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담당자 앞
② 메일 : gmi2024@naver.com
기간 2024년 5월 17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 시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내용	미디어 사용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여자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대안 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숙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일정	7월 15~26일, 11박 12일 ※ 교육청 협조 출석 인정 가능
장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대상	여자 중고등학생 24명
비용	식대 보조금 10만 원 ※ 취약계층 무료
신청	6월 21일까지
문의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19



02 사이버 공격 예방에 동참하세요

내용	2024년 상반기 민간 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 안내
지원 대상	민간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
지원 내용	① 해킹 메일 ② 디도스 공격 대응 ③ 모의 침투 ④ 취약점 탐지 대응
신청 기간	5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boho.or.kr)
문의	032-453-7493



03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합니다

내용	2024년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중 환급 신청 안내
기간	5월 31일까지 ※ 일제 정리 기간 이후에도 5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대상	지방세환급금 미수령 권리자(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조회·신청	인터넷(위택스), 앱(스마트 위택스), ARS(142-211), 전화(032-440-2636), 카카오톡 채널(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 현금 수령
문의	032-440-2636

04 지역 서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	6월 28일까지
대상	관내 서점 중 접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
기준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① 사업자등록증에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된 업체 ② 외부에 서점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됨 ※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과 일치 ③ 인천광역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해당 서점 ※ 인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경영 중인 서점 ④ 현장 판매 매출 증빙(신용카드 매출 확인서 등)이 가능한 업체
절차	홍보물 제작·배포 → 접수 신청 → 현장 실사 → 결과 제출
신청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 서점 담당 부서
문의	032-440-6663

05 부평 캠프마켓을 함께 누려요

내용	부평 캠프마켓 ‘오늘&내일’ 프로그램 안내
운영 기간	11월 2일까지
운영 내용	체험 36회, 체육 8회
운영 요일	화, 목, 토(프로그램별 상이)
모집 인원	회당 15명 이내(선착순 접수)
장소	부평 캠프마켓 오늘&내일 인포센터, 운동장 부지
신청 기한	해당 월 기준 일주일 전 예약 페이지 오픈(선착순 마감 시까지) ※ 신청 후 운영사무국의 확정 문자를 받아야 최종 신청 완료 ※ 프로그램 접수 현황은 부평 캠프마켓 블로그와 SNS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QR 코드 접속 또는 운영사무국 문자·전화 신청
문의	032-425-6406



06 구직 여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세요

내용	2024년 인천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교육생 모집
교육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실무자 과정
접수	6월 3~14일
기간	6월 26일~8월 28일
방학	7월 29일~8월 2일
문의	032-440-6549

07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내용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 대학생 멘토 모집
일정	7월 14~26일, 11박 12일 ※ 전날 하루 사전 교육
장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대상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학과 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22세 이상 여성)
특전	활동비 지급 및 활동증명서 발급 ※ 캠프 기간 숙식 제공
모집	1차 5월 3일까지, 2차 5월 7~31일까지, 3차 6월 6~21일까지
문의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19



08 그림으로 세계와 소통하세요

내용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접수 기간	5월 6일까지
접수 방법	QR 코드를 통한 접수
문의	070-8209-4658



대회 일시	5월 19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시청 앞 인천爰틀 광장
주제	당일 개회식에서 발표
재료	물감을 사용하지 않는 채색 도구(크레파스, 색연필, 파스텔, 연필, 마커 등) ※ 도화지 주최 측 제공
준비물	개인 채색 도구, 돗자리, 그늘막, 간식 등 개인 용품

09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내용	일상 속 작은 행복,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주제	시민 행복,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자격	인천 시민 또는 인천에 사업체를 두고 있거나 인천 소재 직장 및 학교를 다니는 자 ※ 공무원은 제외
접수	인천시 홈페이지 → 시민 참여 → 공모전, 이메일(pugn12@korea.kr), 팩스(032-440-8714) 중 한 가지 선택 접수 ※ 접수 마감 당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1인당 3건 이내 접수
기간	5월 10일까지
시상	9명(팀) 내외, 상장 및 상금(500만 원 내외)
문의	032-440-1653

10 가족 친화 기업을 지원합니다

내용	2024년 가족 친화 인증 신청 및 컨설팅 지원 안내
신청	6월 28일까지(정부 인증 신청 기간)
대상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신청 제한: 업력 1년 이하 및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 친화 제도 실행,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지원	① 컨설팅 가족 친화 인증 전문 컨설턴트 1:1 맞춤 컨설팅 지원, 가족 친화 경영 방향 제시 및 가족 친화 인증 절차 등 안내 ② 직장 교육 조화로운 삶을 위한 일·가정·생활의 균형, 행복한 일터, 가족 친화 경영 및 가족 친화 인증 제도, 가족 친화적 조직 변화 등 교육 지원
문의	032-517-1935, 032-440-2808

5월의 행사

인천 곳곳 다채로운 시설에서 펼쳐지는
유익하고 알찬 행사와 함께 일상을 누리세요!

송도컨벤시아

글로벌 케이팝 패션쇼
5월 5일
송도컨벤시아 2홀
www.prankers.co.kr
2만 5,000원
prankersceo@naver.com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11일 오전 10시~오후 6시
송도컨벤시아 1홀~4홀
www.droneuamexpo.kr
무료
02-3282-2337

제28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
5월 16~19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송도컨벤시아 1홀
5,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02-3453-8887

미추홀도서관

어린이날 문화 행사
‘꿈나무터 박물관!’
5월 7일까지
시민 대상
032-440-6647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5월 2일 오전 9시~소진 시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032-440-6647

상반기 인문학 특강
‘주역으로 알아보는 세상 이야기’
5월 7~14일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성인 대상
032-440-6666

중장년 인생 수업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인문학’
5월 7~14일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중장년 대상
032-440-6668

5월 가정의 달 문화 공연
‘피노키오’
5월 11일 오전 11시~정오
시민 대상
032-440-6665

다가치 그림책과 어울림(2차)
5월 11일 오후 2~3시
초등 저학년 대상
032-440-6643

시민로스쿨 특강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5월 16일 오후 7~9시
전체 대상
032-440-6668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 축제
5월 25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민 대상
032-440-6643

북스타트 부모 교육 특강
5월 26일 오후 4~6시
부모와 5~7세 유아 대상
032-440-6647

5월 문화가 있는 날
‘처음 만나는 서양미술’
5월 28일 오후 7~9시
시민 대상
032-440-6665

송도국제기구도서관 특강
‘역사를 알면 경계가 보인다’
5월 11일 오후 2~4시
성인 대상
032-851-6650

청라호수도서관

5월 어린이날 행사
‘마니마니 키즈쇼’
5월 4일 오전 11시~11시 50분
전체 대상
032-563-8044

5월 북스타트 ‘실버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놀이’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조)부모와 4~7세 유아 대상
032-563-8044

도서관과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문해력
5월 30일 오후 2~4시
초중등 학부모 대상
032-563-8044

청라국제도서관

5월 작가와의 만남
‘클래식은 처음이라’
5월 9일 오전 10시~정오
성인 대상
032-562-1675

5월 문화 행사
‘신비한 풍선 공방 매직 별론 쇼’
5월 25일 오전 11시~정오
시민 대상
032-562-1675

영종하늘도서관

양육자 교육 ‘엄마의 어휘력’
5월 21일 오전 10시~정오
성인 대상
032-746-9139

영어 그림책 읽어주세요!
5월 23·30일 오후 4시~5시 30분
초등 저학년 대상
032-746-9139

마전도서관

가정의 달 문화 행사
‘블레이드 종이접기’
5월 11일 오후 1시~2시 30분
초등 저학년 대상
032-590-2833

북스타트주간 특강
‘ㄱㄴㄷ 미니 그림책 만들기’
5월 19일 오후 1~3시
양육자와 유아 대상
6~7세 12팀
032-590-2833

연수문화원

2024 연수문화원 전통 성년식
20살이 된 성년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전통 성년식 개최
5월 18일 오후 1시
원인제
누구나
무료
현장 자유 관람
032-821-6229

연수학탐방로드
지역에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돌아보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
1차 : 5월 11일 청학동 탐방
2차 : 5월 24일 연수동·선학동 탐방
3차 : 5월 31일 송도동 탐방
4차 : 6월 15일 옥련동·동춘동 탐방
누구나(회차별 25명 선착순)
무료
연수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032-821-6229

2024 연수프린지페스티벌
영화 OST와 함께하는 킷츠앙상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며
일상 속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문화 예술 공연
5월 29일 오후 7시
연수문화원 야외공연장
누구나
무료
현장 자유 관람
032-821-6229

땅 이름 이야기

부평·부평구

우리가
이 땅의
의의
이름들



글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의 ‘부평’이라는 이름은 고려 충선왕 때인 1310년, 길주목 吉州牧이 부평부 富平府로 바뀔으로써 생겼다. 대개는 이 ‘부평’을 넓은 곡창지대여서 ‘수확이 많은<富> 들<平>’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 동네는 먼 옛날부터 일제 日帝 강점기 초반까지도 곳곳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던 곳이니, 풍요로운 평야였다고 볼 수는 없다.

1656년에 나온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 등 여러 옛 자료들을 보면 이곳 부평에 대해 “삼면 三面이 모두 물이며, 낮고 막혀 통하지 않는 땅”이라는 표현이나,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만든 방죽 이름이 여럿 나온다. 주요 산물 産物도 소금·조기·낙지 등이 나올 뿐, 쌀이나 곡식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고려 충선왕 시대에 이곳이 풍요로운 농경지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부평’도 ‘풍요로운 들판’이라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부평이 상습 침수지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곡식을 생산하게 된 것은 1923년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일제의 ‘산미증산계획’에 따라 ‘부평수리조합’이 생기고, 이곳에 농사용 물을 대주는 ‘서부간선수로’가 생긴 뒤부터로 본다. 따라서 부평의 뜻은 언어학적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인데,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다음 내용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부평군은 본래 고구려의 부여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김화현이다.(富平郡 本高句麗 夫如郡 景德王改名 今金化縣)” 이를 보면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 김화군 金化郡의 신라시대 이름이 지금의 인천 부평과 똑같은 한자 이름이었다. 그리고 ‘富平郡’이 ‘金化縣’이 됐다

富平

다섯 번째 땅 이름
[부평 부평구]

고 했으니 ‘富平=金化’라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어 ‘富=金’이라는 관계도 추론할 수 있다. ‘富平’의 ‘平’은 벌판이나 동네 등의 뜻일 뿐이고, ‘金化’의 ‘化’는 별 뜻이 없는 접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말 땅 이름에 쓰인 ‘金’ 중에는 ‘신神’이나 ‘거룩한 존재’를 뜻하는 우리 옛말 ‘금’을 한자로 바꿔 표현한 것이 많다. ‘金化’의 ‘金’도 이 같은 사례로 해석된다. 그리고 ‘富=金’이니 ‘富’ 역시 ‘金’과 같은 뜻을 가진다. 따라서 ‘富平’은 ‘신성한 땅(동네)’ 정도로 해석이 된다. 이는 부평의 옛 이름인 ‘주부토 主夫吐’의 뜻과도 통하는 것이다. (부족장이나 제사장처럼) 고귀한 인물이 다스리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 옛날부터 인천과는 행정구역이 달랐던 부평이 인천에 들어온 것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6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부 仁川府가 부평에 속하는 땅을 넓힐 때였다.



김정호의 <청구도>에 나오는 부평과 그 일대

다섯쌍둥이와 노부부

이번 호 <굿모닝인천>은 세 살배기의 달음질로 시작해 80대 노부부의 느긋한 산책으로 끝을 맺습니다.

표지를 펼치면, 엄마, 아빠 품을 향해 돌진하는 다섯쌍둥이와 두 팔 벌려 이들을 맞는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 7명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인천사진관’(仁·生·네·컷)에서는 노부부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맑은 날에도, 폭풍 치는 날에도 항상 함께였을 이들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손을 서로 맞잡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섯쌍둥이가 해맑은 웃음을 짓는 곳, 노부부가 손을 맞잡은 곳 모두 ‘인천 愛뜰’입니다.

사람에게도 인력^{인력}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쌍둥이와 부모 사이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집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서로 포옹하지 않고는 못 배길 듯합니다.

젊은 연인 못지않게 애정을 과시하는 노부부의 모습에서도 인력이 감지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힘일 것입니다.

가정은 이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로 유지되지 싶습니다. 그 에너지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겠지요. 세대를 뛰어넘어 인천愛뜰에서 펼쳐진 가족들의 사랑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여러 기념일이 달력에 빼곡합니다.

<굿모닝인천> 5월호에는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확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세 살배기 다섯쌍둥이 가족과 노부부를 가족 사랑의 시작 그리고 완성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맨 처음 배우는 곳도 가정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그 소중한 공간이 바로 가정임을 되새겨봅니다.

누군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가정이 ‘미리 누리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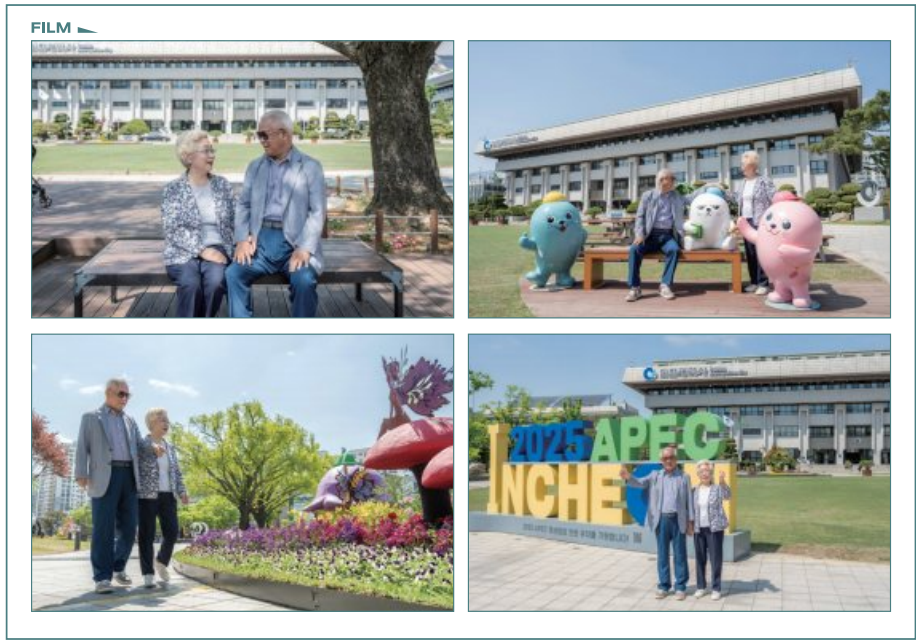
仁 · 生 · 네 · 컷

환호와 박수로 가득할 시민의 정원에서

“인천에서의 행복한 삶을 네 컷 사진에 담는다.”

<굿모닝인천>이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을 통해 시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진으로 추억을 선물합니다.

참여 **신원철·여영춘 부부**(연수구 해돋이로)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 돌아보니 80년 넘는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온 시간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딸 잘 키워내 시집 장가 보내고, 귀여운 손주들도 품에 안았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 또 쌓아온 삶의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또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게 할 원동력인 아내가 있었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뻛고 행복했습니다. 아내와의 오붓한 산책의 무대가 ‘인천愛뜰’이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봄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시청 앞뜰을 한 바퀴 휘돌며 조금 이른 초여름을 떠올렸습니다. 6월, 인천이 1,000만 시민과 함께 염원하는 2025 APEC 유치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때, 이 초록의 광장이 환호와 박수로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인천이 또 한 번 큰 세상과 마주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호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가족, 친구 등 사진을 함께 찍을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짧은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면 기억에 남을 멋진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참여 신청** gmi2024@naver.com